**어파이어 감상문**

**2011130703 독문과 이민우**

영화 제목과 상반되는 매우 추운 날에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가 끝난 후 가장 처음으로 든 생각은 '역시 쉽지 않다.'였다. 이것은 아마도 본인이 부지불식간에 할리우드식 킬링타임용 영화에만 익숙해져있는 탓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요소들이 이런 생각을 유발하였는지 숙고하며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첫 번째는 음향 효과의 활용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앵앵거리는 날벌레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거의 영화 내내 레온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삽입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특이한 점은 날벌레 소리는 끊임없이 나지만 소리의 발원지인 날벌레 자체는 화면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발원지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레온이 숲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들리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 벽 너머로 들리던 나디아 혹은 펠릭스와 다비트의 성관계 소리와도 비슷하게 느껴진다. 날벌레 소리는 영화 감상 내내 나의 영화 몰입을 방해하였는데 독일의 유명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낯설게 하기 개념의 연출로 관객의 연극 몰입을 방해하였듯이 페촐트 감독 또한 비슷한 효과를 의도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이런 확대해석에 가까운 생각을 제외하고 보자면 레온의 심리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영화 전체에 걸쳐 이러한 발원지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은 레온이 불안해하는 혹은 언짢아하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만 삽입되거나, 아예 레온을 불안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장소의 대비와 인물들의 대비의 직접적 연관성이다. 물론 이것 자체는 독일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요소가 아니지만 장소의 대비가 나름 독특하게 느껴졌다. 영화의 장소는 별장, 숲, 바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레온은 별장 내부-숲에 주로 상주하며 반대로 펠릭스는 별장 외부-바다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레온이 내향적이고 펠릭스가 외향적인 성격인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숲은 다소 스산하고 어두우며 온통 나무 가득해 시야가 좁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공간, 발원지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공간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레온의 심리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다. 때문에 이러한 숲이 불타면서 숲에 살던 짐승들이 화마에 쫓기는 것은 작가로서 훌륭한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내몰리는 레온의 심리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다. 반대로 바다는 밝고 시야가 탁 트인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레온은 바닷가에서만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펠릭스와 다비트는 이런 바다를 좋아하는 어떤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 자유분방한 인물들이며 이것은 둘의 자유로운 연애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숲과 바다에 대한 이러한 의미부여가 신선하게 다가왔다.

세 번째는 토마스만 소설의 등장인물 토니오 크뢰거와의 유사성이다. 본인은 토마스만의 토니오 크뢰거를 읽으며 토니오 크뢰거의 심리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소설에서 토니오가 작가로서의 자신과 소시민으로서의 친구들 사이에서 괴리감과 거리감을 느끼며 섞여들지 못하듯이 작가인 레온도 펠릭스나 다비트와 좀처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동성애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도 비슷하며 펠릭스가 레온과 친하면서도 이러한 레온의 어중간한 모습에 화내며 결국엔 레온을 놔두고 다비트와 트랙터를 타고 떠난다는 점 또한 토니오와 한스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점은 나디아이다. 토니오 크뢰거에서 토니오가 짝사랑했던 잉에는 철저히 토니오와 대칭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나디아는 레온과 펠릭스-다비트 사이에 존재하는 성격의 인물이다. 그리고 끝내 영화 결말부분에서 나디아와 이어지는 것으로 암시되면서 토니오와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상술했듯이 본인은 토니오의 심리가 정말 이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결말이 매우 마음에 들고 흡족했다.

이번 영화 감상 학과행사는 본인에게 첫 학과행사 경험이었다. 또한 관람장소인 이화여대는 이번 학과행사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가본 장소였으며, 독일 영화를 영화관에서 감상한 경험 또한 처음이었다. 모든 것이 본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